

고래관광 도입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고래자원과 고래관광의 관계를 중심으로 -

고 민 규*

The Preference and Participation of Whale Resources and Whale Watching

Min-Gyu Go*

< 목 차 >

I. 서론	IV. 분석결과
II. 이론적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 고래관광의 정의	2. 기술통계 분석결과
2. 고래자원의 생태적 접근	3. 연구과제 분석
3. 고래자원의 역사·문화적 접근	V. 결 론
4. 고래의 관광자원 이용선호	참고문헌
III. 연구방법	Abstract

I. 서론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과 보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대안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여가 시간의 증가에 따른 관광자의 관광형태가 점점 다양화, 복합화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관광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녹색관광(Green Tourism), 생태관광(Eco Tourism)과 같은 지속가능한 형태의 대안관광이 발전하고 있다. 대안관광 중 생태관광은 지속가능한 관광의 주요한 관광의 형태로 평가받고 있으며 관광발전과 자원보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에 미치

접수 : 2010년 3월 18일 최종심사 : 2010년 5월 12일 게재확정 : 2010년 5월 14일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Corresponding author: 02-2105-4982, mggo@kmi.re.kr)

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오민재, 이소연, 2008). 생태관광의 중요성은 생태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며 관광객에게 자연 및 문화자원에 대한 교육 및 해설을 통해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는 생태계의 보전에 많은 영향을 가져 온다(김성진, 2002; 박행구·김농오·김지인, 2008).

해양생태관광개발에 있어서 갯벌생태관광자원에 대한 개발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불어 탐조관광과 습지관련 관광 또한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다양성에 있어서 해양생태관광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해양생물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관광은 백령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물범 생태체험관광이 현재까지는 유일한 실정이며(한겨레신문, 2008), 고래에 대한 해양생태관광에 대한 가능성 또한 조사중에 있다.

바다 포유류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생태관광으로서의 고래생태관광은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이미 일반화 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상업적 고래생태관광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고래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울산과 포항 제주를 중심으로 고래관광산업의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승우 외, 2008). 이 지역은 고래의 잦은 출몰과 그물에 의한 고래흔적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목시조사를 통해 파악된 고래개체수가 증가 하고 있는 지역이다. 고래 개체수의 증가에 따라 고래생태관광만족도가 높아지는 것과 같이 고래관광 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McCloskey, 1983), 이러한 고래개체수의 증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래생태관광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래생태관광에서 중요한 요소는 고래개체수의 증가와 더불어 고래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다. 국민들이 고래생태관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고래생태관광을 추진하는 것이 성공적인 고래생태관광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일반 시민들이 고래자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며, 고래자원을 이용한 고래관광의 개발에 있어 어떠한 형태의 고래관광을 선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고래자원의 인식과 고래관광의 형태에 따른 참여의도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알아보도록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고래관광의 정의

고래관광의 영문표기는 **Whale watching**으로 단순히 고래를 본다는 사전적 의미로

사용할 수 있지만 Erich Hoyt & Glen T. Hvene Gaard(2002)의 연구에서는 고래관광이란 비행기, 보트, 육지로부터 또는 고래류와 함께 수영을 하면서 야생의 상태에서 고래류를 관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Parsons & Warburton & Woods - Ballard & M. Lück(2003)은 고래관광을 자연 상태에서 고래류를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상업적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생태관광으로서의 고래관광은 1950년대 미국 샌디에고의 카브리요 국립공원(Cabrillo National Monument)에 귀신고래를 관찰하기 위한 관찰대가 마련되면서 처음 시작되었다. 그리고 1955년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앞바다에 나타나는 귀신고래를 관찰하기 위한 관광유람선이 운행되면서 선박을 이용한 상업적 고래생태관광이 시작되었다(Erich hoyt, 2001). 고래의 회유경로에 따라 회귀시기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고래생태관광과 알래스카 북방 범고래, 적도 부근의 고래와 같이 회유하지 않는 고래 관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고래생태관광이 있다. 노르웨이나 알래스카지역과 같이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고래를 관찰하는 것과는 달리 대부분 지역에서는 회귀시기에 이루어지며 고래관찰 시기가 한정된다. 소요시간은 3~5시간이 가장 많으며 1일 일정인 경우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고래와 조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래관광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정비 방안 연구, 2008).

국제동물복지기금(IFAW, International Fund for Animal Welfare)에서 발표된 'Whale Watching 2001' 보고서에 의하면, 고래생태관광은 1998년 87(66개의 독립국가, 21개의 부속도서)개국에서 9백만명 이상이 참가하여 최소한 1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였다. 1991년 이후 1998년까지 참여율은 123% 증가하였다. 1990년부터 1994년의 90년대 초반에는 34%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1994년대부터 1998년의 90년대 중반에는 66%의 참가율 증가를 보여서 성장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고래관광에 대한 정의는 위에서 언급한 자연 상태의 고래를 관찰하는 행위로 일반화 할 수 있으나 고래자원의 다양한 이용으로 인하여 고래관광을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래관광이란 '고래자원을 이용한 모든 고래관련 관광'으로 정의하며 고래생태관광이란 '선박 등 탈 것을 이용하거나 육지로부터 자연 상태의 고래를 관찰하는 관광'으로 정의한다.

2. 고래자원의 생태적 접근

고래자원은 고래와 관련된 생태자원과 더불어 사회·문화자원을 포함한 고래와 관련된 모든 자원의 형태로 볼 수 있다. 고래관련 사회·문화자원은 고래관광에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으나 야생동물이 중심인 고래생태자원은 여전히 관광의 이용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고래의 개체 수에

따른 조우의 확률과 근접해서 관찰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부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래와의 조우 확률을 근거로 고래관광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래의 개체 수는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Duffus, 1998).

우리나라 연안의 고래자원의 분포와 더불어 고래관광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07년까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서 연안의 고래 목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봄철인 4월과 5월에 주로 행해졌으며 동, 서, 남해 지역으로 실시되었고 동해에서는 8회 실시하였다. 목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견된 고래는 총 10종으로 밍크고래, 흑범고래, 범고래, 상괭이, 참돌고래, 낮돌고래, 큰머리돌고래, 큰돌고래, 까치돌고래, 짧은부리참돌고래였으며 이 중 해역과 관계없이 가장 자주 발견되는 종은 밍크고래였다. 목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고래연구소가 예측한 우리나라 연안의 밍크고래의 개체 수는 < 표 1 > 과 같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연안의 고래의 증가는 혼획에 대한 기록으로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의 포경중단 결정에 따라 고래포획을 법적으로 금지하였으나, 어구에 걸려 어류와 함께 잡힌 고래는 유통을 허가하고 있다. 혼획은 동해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여 약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종류별 분류를 보면 돌고래가 전체의 46%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이어서 밍크고래(14%)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해양경찰청, 2005~2007).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고래생태관광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관찰의 대상이 되는 고래는 돌고래와 같은 소형고래가 아닌 수염고래과의 중, 대형 고래이다. 이는 소형고래는 정지된 상태에서의 관찰에 있어 부적합하고 짧은 시간의 관찰만이 가능한 반면 중, 대형고래의 경우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일정공간에서 고래의 행태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관찰의 대상이 되는 고래는 캘리포니아 귀신고래로 연안에서 번식과 수유를 하기 때문에 관찰이 매우 용이하다. 우리나라 또한 한국계 귀신고래가 있으나 현재 멸종위기 종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 표 1 > 동해 목시조사 결과

연도	목시거리(마일)	계절	고래류									
			밍크고래	흑범고래	상괭이	참돌고래	낮돌고래	큰머리돌고래	큰돌고래	까치돌고래	미확인대형고래	미분류돌고래
2002	총계	1,155	32	-	-	530	25	58	-	-	-	4
	추계	578	1	-	-	-	-	-	-	-	-	-
2003	총계	1,082	16	-	6	430	-	-	-	-	-	-
	추계	578	1	-	-	-	-	-	-	-	-	-
2005	총계	1,041	41	700	-	4,200	3	10	430	17	-	-
2006	총계	1,078	25	-	3	2,302	3	-	-	20	1	-

출처 : 국립수산과학원, 「고래류의 생태계 기반에 관한 연구」, 2007.

있으며 1977년 이후로 관찰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재 많이 발견되고 있는 밍크고래는 중형 고래로 고래생태관광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상업적 고래생태관광이 시행된 적이 없으나 울산, 포항, 제주와 같이 고래관찰이 가능한 지자체에서 고래생태관광에 대한 사업유치에 매우 적극적이다. 고래관광의 시행에 있어 고래생태관광의 형태뿐만 아니라 고래자원의 다양한 이용방법이 고려되고 있으며 특히 고래생태 체험관과 더불어 소형고래를 이용한 터치풀 등과 같은 직접체험의 형태로의 발전을 고려하고 있다.

고래생태자원을 고래관광에 이용하는 주요형태는 본 연구의 정의에 따른 고래생태관광으로 주로 선박을 이용하여 자연 상태의 고래를 관찰하는 형태다. 고래생태관광은 고래관광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5년 이후 고래생태관광을 운영하는 국가는 타이완, 피지, 오만 등 22개국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관광객 수가 100만명 이상인 나라는 미국, 캐나다, 스페인, 호주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다(Erich hoyt, 2001). 우리나라와 해역특성이 유사한 일본은 1988년 고래생태관광을 시작하여 시장 규모는 10만명 정도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이승우 외, 2008). 반면 이러한 자연 상태의 고래를 관찰하는 것 이외에 아쿠아리움과 같은 수족관 또는 돌고래쇼장 등에서 고래를 관찰하거나 쇼를 관람하는 형태가 있다. 아쿠아리움(수족관), 동물원, 식물원은 박물관의 한 형태로서(국제박물관협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의 '박물관'에 대한 정의 참조) 자연계 박물관의 한 범주에 속한다(전재균 · 윤태환, 2005). 하지만 그 소재가 고래이기 때문에 고래관광의 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3. 고래자원의 역사·문화적 접근

고래생태자원과 더불어 고래자원에서 중요한 것이 고래의 역사·문화적 자원의 이용이다. 역사·문화적 고래자원의 이용에 있어 그 기원이 되는 것은 과거 고래를 식용으로 사용한 기록과 문헌과 고래관련 문화재로 고래관련 문화 중 식문화의 경우 고래음식문화로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역사적으로 고래자원에 관련된 문서로 조선시대의 임원경제지는 전원생활을 하는 선비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정리한 생활과학서 성격을 띠고 있다. 주제에 따라 16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중 전어지(佃漁志)는 목축, 사냥, 어로(고기잡이 기술), 물고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래에 관한 부분은 제3권 어로부분에서 돌고래를 낚는 방법을 기술하였고, 제4권 물고기 명칭의 고찰부분에서 고래를 언급하였다. 그 외에도 좌초된 고래에서 상당량의 수염과 고래껍질, 고래고기를 취득하였으며, 고래 1마리에서 얻는 이익이 상당히 컸으나 이익이 모두 관으로 돌아가 적극적인 포경활동이

이루지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말까지 근대포경시기로 한반도 해역에서 고래포획이 성행하였는데 이는 19세기 유럽은 산업화되면서 고래기름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 노르웨이에서 포경장비가 발명되면서 태평양으로 이동하여 고래자원이 풍부하였던 우리나라 연안에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이중 프랑스의 리앙크루호(Ship Liancourt)가 독도를 처음으로 서양에 소개하여 당시 독도는 '리앙크루 락(Liancourt Rocks)'으로 불리게 되었다(남태우·전말숙·정연순·장로사, 2008).

이러한 역사와 함께 고래음식문화가 발달해 왔다. 우리나라는 신석기시대부터 고래를 잡아 그 고기를 식량으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진 60여점의 고래 그림 중에 그물과 작살에 맞은 고래가 표현되고 있으며, 패총 속에서 다양한 종의 고래뼈가 발견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고래음식 문화는 울산의 고래축제 등에서 일본과 함께 고래음식문화의 교류를 통해 발전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고래의 식용을 위한 상업적 포경은 많은 부분에서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음식문화는 여전히 일정 지역에 존재하며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고래의 음식문화와 관련한 고래관광형태의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울산, 부산, 포항과 같은 지역에서 고래음식문화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고래의 음식문화와 상업포경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상업포경을 중요시 여기는 집단과 고래를 보호하려는 집단의 대립 구도를 볼 수 있다(Hamazaki & Tanno, 2001; Orams, 2001). 이에 따라서 고래생태관광과 고래사냥은 매우 상반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고래사냥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관해 연구되었다(Brendan J Moyle & Mike Evans, 2008; Erich hoyt & Glen T. Hvene gaard, 2008). 고래사냥의 일부는 고래의 식량자원화에 대한 문제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쉽게 해결 할 수가 없는 문제로 지역에 따라서는 고래를 식용하는 음식문화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Brendan J Moyle & Mike Evans, 2008). 반면, 현재 일본에서는 해양 포유류에 대한 어업행위와 고래생태관광이 동시에 시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홋카이도 아카시(Akkeshhi)해역과 펀카(Funka)해역 등 여러 곳에서 이러한 형태를 볼 수 있다(Yoshikazu, 2004).

다른 한편으로 고래관광은 박물관과 축제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래관련 문화자원은 반구대 암각화, 울산시 고래박물관과 동해시 고래화석박물관이 있다. 울산 장생포 일대에 많은 문화자원이 남아 있는데, 고래사당, 천지면당(이유수, 1986) 또는 고래신사로 불리는 신명신사(연합뉴스, 2008)와 고래해체장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고래 고기를 삶는 집을 찾아 볼 수 있다. 울산시는 2008년 7월 25일 지식경제부가 장생포 일대를 고래문화특구로 지정하여 문화관광자원의 보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승우 외, 2008).

4. 고래의 관광자원 이용실태

고래관광은 고래를 소재로 하는 모든 관광의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포괄적 의미에서의 고래관광의 형성은 고래자원의 이용이 포경에서 시작된 것에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포경문화에 따른 식문화와 고래축제와 고래마을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고래 관련문화가 파생되었다. 관광객은 고래자원의 이용형태에 따라 다양한 고래관광의 형태로 인식한다고 가정할 때 고래관광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실시되고 있는 고래관광과 앞으로 실시될 고래생태관광 등 어떠한 형태의 고래관광을 선호하는지에 대해 관광객의 특성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Amante - Helweg, 1995; Muloin, 1998; Orams, 2000; Finkler, 2001; Lück 2003).

관광에 있어 선호란 관광객이 특정관광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우호적인 선호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광객은 선호로 인해 관광지를 방문하고자 하는 행동욕구를 가지게 된다(곽배용, 2005). Egly & Chaiken(1993)은 외부환경의 자극과 그에 대한 반응 사이에 가치는 존재하며 일종의 종결된 과거의 경험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고동우(1988)는 하나의 관광의 목적지가 지니고 있는 특정한 성질, 즉 긍정적 요소 또는 매력적인 요소를 관광목적지의 선호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관광자원(Tourism resource) 혹은 관광 매력물(Attraction)이라는 용어와도 상통한다고 하였다.

관광선호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Rao & Thomas & Javalgi(1992)의 연구에서는 여행자들에게 관광목적지에서 선호활동과 여행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을 하기 위해서 특정 관광지를 선정한다면 미국여행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광속성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Parsons & Warburton & Woods - Ballard & M. Lück(2003)의 스코틀랜드의 고래생태관광산업에 대한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관광객의 고래인지와 정보 등에 대한 인식과 고래생태관광의 참여 동기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고래생태관광자는 일명 대중관광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비해 가처분 소득이 높으며 또한, 높은 교육수준으로 환경의식이 높고 재방문의 경우 또한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서부스코틀랜드의 고래생태관광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로 고래생태관광에 대한 기회를 지역에 도착한 이후에 접할 수 있어 정보에 대한 노출 부족과 관광정보의 제공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보에 따라 만족도 또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는 변우희 · 이정열 · 한형주(2009)의 울산지역 고래관광 상품개발에 관한 인식도 평가와 대응에 관한 연구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고래관광 상품

개발요인을 나누어 인식도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소프트웨어에서는 지역민의 소득증대, 축제의 국제화가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하드웨어는 생태교육체험시설과 고래문화거리 조성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관광유람선 외 고래를 직접 체험하는 변수에 대해서는 비교적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었는데, 이는 고래생태관광에 대한 인식도가 낮기 때문이며 고래생태관광 모델정립에 있어 이러한 인식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진화(2009)는 울산 고래관광의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울산의 고래박물관이라는 사회·문화적 고래관광의 범위 안에서 관광자의 환경인식을 연구하였다. 고래관광에 대한 인식이 고래관광 관련 인식과 선호에 대한 해외 연구는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되고 있으나 국내의 고래관광에 대한 연구는 기초적 단계로 고래관광에 대한 지역관광개발의 상품으로서의 인식 또는 중요도에 집중되고 있으며, 고래관광의 가능성이 높은 울산지역에 한정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고래자원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고래관광의 시행에 있어 선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통계특성에 따라 고래자원의 이용형태와 고래관광의 선호가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며 이러한 고래자원의 이용형태와 고래관광의 선호가 참여의사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파악해 하는 것이다. 이에 연구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과제 1)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고래자원이용에 대한 선호를 알아본다.
- 연구과제 2)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고래관광형태에 대한 선호를 알아본다.
- 연구과제 3) 고래자원의 이용선호와 고래관광 참여의도의 관계를 알아본다.
- 연구과제 4) 고래관광의 선호형태와 참여의도의 관계를 알아본다.

연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문지의 내용은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선정하여 크게 5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고래자원이용에 대한 5문항, 고래관광의 형태에 대한 9문항, 고래관광 참여의도 1문항, 인구통계학적특성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¹⁾.

고래자원의 이용형태는 이론고찰을 토대로 철저한 보호 및 관리, 상업포경의 재개, 과학적 연구기반 마련, 사회문화적 활용방안, 일반국민이 접할 수 있는 5가지 형태의 방안으로 나누었고, 고래관광의 선호형태는 일반적인 고래관광의 정의인 선박을 이용

1) 본 설문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고래관광의 사회·문화·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관한 연구'의 설문데이터의 평가항목을 재분류 후 재분석한 것임

〈표 2〉 지역별 표본 수

지역별	표본(N)	백분율(%)	지역별	표본(N)	백분율(%)
서울	160	18.5	강원	33	3.8
부산	58	6.7	충북	27	3.1
대구	50	5.8	충나	30	3.5
인천	51	5.9	전북	44	5.1
광주	26	3.0	전남	36	4.2
대전	33	3.8	경북	57	6.6
울산	19	2.2	경남	58	6.7
경기	175	20.2	제주	8	.9

하여 해상에서 고래를 관찰하는 방법, 고래생태관찰, 아쿠아리움, 돌고래 쇼 등 고래 관람, 고래역사 탐방, 고래축제나 문화예술행사 참여, 고래박물관 견학이나 고래테마 마을 방문, 새로운 해양관광활동, 휴양/휴식 등 단순여가, 바다에 대한 모험심 충족의 9가지로 나누었다. 측정항목들은 리커트 유형 5점 척도법(5-point Likert-type scale)을 사용하였으며 '1=매우 그렇다, 5=매우 그렇지 않다'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집단을 규정하였다. 전국 16개 시·도 거주 만 15세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도별 인구비, 성별로 할당한 무작위 표본 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설문지를 통한 대인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07년 5월부터 8월 동안 이루어졌으며, 총 약 1000매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865개의 유효표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SPSS Windows 13.0으로 전산 처리하였다. 기술분석을 통해 기초적인 내용을 분석하였고,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들과 고래자원의 이용선호, 고래관광의 선호형태에 관련된 내용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였다. 고래관광 참여의도와 고래자원의 이용선호, 고래관광 참여의도와 고래관광의 선호형태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총 865개의 설문지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응답자들의 성별은 남성이 428명으로 49.7%, 여성은 434명으로 50.3%였다. 연령은 15~30세가 가장 많은 342명으로 39.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31~40세가 234명으로 27.2%였다. 직업은 학생과 경영/관리/전문/자유직이 가장 많은 172명, 20.7%였으며, 사무관련직/기술직이 다음으로 154명 18.5%였다. 소득은 1백만원 미만이 181명 24.9%, 1백

〈표 3〉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내용	빈도	%	구분	내용	빈도	%	
성별	남성	428	49.7	직업	경영/관리/전문/자유직	172	20.7	
	여성	434	50.3		사무관련직/기술직	154	18.5	
연령	15세~30세	342	39.7		자영업	33	4.0	
	31세~40세	234	27.2		서비스/판매/영업직	86	10.3	
	41세~50세	185	21.5		농/임/수산업	15	1.8	
	51세~60세	75	8.7		생산/단순노무직	31	3.7	
	61세 이상	25	2.9		주부	112	13.5	
소득	1백만원 미만	181	24.9		결혼 여부	학생	172	20.7
	1백만원 단위	169	23.3			무직/퇴직/기타	56	6.7
	2백만원 단위	111	15.3			미혼	376	45.0
	3백만원 단위	134	18.5	기혼		452	54.1	
	4백만원 단위	68	9.4	기타			8	1.0
	5백만원 이상	63	8.7					

만원 단위가 169명 23.3%를 나타냈다. 이는 연령구조와 직업의 구성이 15~30대 학생이 많음에 따른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결혼여부에서는 기혼이 452명으로 54.1%, 미혼이 376명으로 45.0%였다.

2. 기술통계 분석결과

고래자원과 고래관광형태에 대한 기술 통계결과를 보면 〈표 4〉와 같다. 고래자원의 이용선호에 대한 질문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는 평균 1.61로 철저한 보호 및 관리방

〈표 4〉 고래자원과 고래관광에 대한 기술 분석

분류	내용	평균	표준편차	순위	크론바흐 알파계수
고래자원의 이용	철저한 보호 및 관리방안 마련	1.61	.716	1	0.617
	상업포경 재개	3.69	.985	5	
	과학적 연구기반 마련	1.81	.732	4	
	사회문화적 활용	1.73	.650	2	
	일반국민이 접할 수 있는 방안	1.80	.777	3	
고래관광의 형태	선박을 이용한 해상 고래관찰	2.15	.889	2	0.702
	아쿠아리움, 돌고래 쇼 등 고래 관람	2.63	1.034	9	
	고래역사 탐방	2.37	.862	4	
	고래축제 및 문화예술행사	2.55	.830	7	
	고래박물관 견학 및 고래테마마을 방문	2.41	.880	6	
	고래생태 호기심	2.07	.760	1	
	새로운 해양관광활동	2.21	.749	3	
	휴양/휴식 등 단순 여가	2.38	.823	5	
참여의도	바다에 대한 모험심	2.67	.884	8	0.683
	고래생태관광 참여의도	2.01	.683		

주: (1=매우 그렇다, 5=매우 그렇지 않다)

안을 마련하는 것이며, 가장 낮은 순위는 평균 3.69로 상업포경의 재개였다. 고래관광의 선호형태에 있어 가장 높은 순위는 평균 2.07로 고래생태의 호기심이었으며, 선박을 이용한 해상 고래관찰은 평균 2.15로 두 번째였다. 가장 낮은 순위는 평균 2.63로 아쿠아리움, 돌고래 쇼 등 고래관람으로 분석되었다. 고래관광의 참여의도는 평균 2.01이었다.

고래자원의 이용선호와 고래관광의 선호형태의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방법인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alpha)를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고래자원의 이용선호는 알파 값이 0.617로 다소 낮으나 0.60이 상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고래관광의 선호형태는 0.702로 0.60 이상의 신뢰도 수준을 확보하였다.

3. 연구과제 분석

1) 인구통계특성에 따른 고래자원의 이용선호 차이분석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고래자원의 이용선호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Anova

〈표 5〉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고래자원의 이용선호

구분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Duncan	F값	P값
결혼 여부	철저한 보호 및 관리방안 마련	미혼	376	1.15	.682	14.734	.001
		기혼	450	1.68	.769		
	상업포경 재개	미혼	375	3.78	.954	2.506	.019
		기혼	446	3.62	.991		
소득	철저한 보호 및 관리방안	1백만원 미만	180	1.56	.670	2.342	0.040
		1백만원 단위	169	1.55	.654		
		2백만원 단위	111	1.74	.783		
		3백만원 단위	133	1.69	.770		
		4백만원 단위	67	1.63	.714		
	5백만원 이상	63	1.43	.640	a		
	상업포경 재개	1백만원 미만	179	3.77	1.023	2.312	.042
		1백만원 단위	166	3.67	.930		
		2백만원 단위	109	3.63	.959		
		3백만원 단위	132	3.57	1.086		
		4백만원 단위	68	3.60	.933		
	5백만원 이상	63	4.03	.915	b		
	일반국민이 접할 수 있는 방안	1백만원 미만	179	1.93	.818	3.807	.002
		1백만원 단위	167	1.85	.781		
		2백만원 단위	111	1.85	.844		
3백만원 단위		134	1.65	.707			
4백만원 단위		67	1.67	.683			
5백만원 이상	63	1.57	.640	a			

주: (1=매우 그렇다, 5=매우 그렇지 않다)

분석을 하였으며, 사후분석은 Duncan 분석을 이용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성별, 연령, 직업에 따른 고래자원의 이용선호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결혼여부와 소득에 따른 고래자원의 이용선호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혼여부에 따른 고래자원의 철저한 보호 및 관리방안 마련에서는 기혼(평균 1.68)에 비해 미혼(평균 1.52)의 선호가 높았으며, 상업포경의 재개와 사회문화적인 활용에서는 미혼(평균 3.82, 2.41)에 비해 기혼(평균 3.67, 2.26)의 선호가 높았다. 소득에 따른 고래자원의 이용선호에서는 철저한 보호 및 관리방안 마련, 상업포경 재개, 일반국민이 접할 수 있는 방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분석을 통해 2개,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철저한 보호 및 관리방안 마련에서는 5백만원 이상과 1백만원 미만인 a그룹으로, 1백만원 미만-4백만원 단위가 b그룹으로 나누어졌다. 상업포경 재개에서는 1백만원 미만-4백만원 단위가 a그룹, 1백만원 미만과 5백만원 이상이 b그룹으로 나누어졌다. 일반국민이 접할 수 있는 방안에서는 5백만원 이상-3백만원 단위가 a그룹, 4백만원 단위-1백만원 단위가 b그룹, 1백만원 미만이 c그룹으로 나누어졌다. 소득에 있어서 일반국민이 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외한 철저한 보호 및 관리방안, 상업포경 재개의 경우 소득에 따른 그룹간의 구분이 약하게 나타났다.

2) 인구통계특성에 따른 고래관광의 선호형태 차이분석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고래자원 선호형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Anova 분석 결과 4가지 특성이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에 따라서 고래역사 탐방(남성 2.47, 여성 2.32), 고래축제 및 문화예술행사(남성 2.62, 여성 2.50), 고래박물관 견학 및 고래테마마을 방문(남성 2.53, 여성 2.33)이 모두 남성에 비해 여성의 선호가 높았다. 직업에 따른 고래관광의 선호형태는 고래역사 탐방, 새로운 해양관광활동, 휴양/휴식 등 단순 여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 사후분석을 통해 각각 2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고래역사 탐방에서는 생산/단순노무직, 학생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이 a그룹이었으며, 무직/퇴직/기타를 제외한 모든 직업군이 b그룹으로 나누어졌다. 새로운 해양관광활동에서는 농/임/수산업은 b그룹이었으며, 이를 제외한 모든 직업은 a그룹으로 나누어졌다. 휴양/휴식 등 단순 여가활동은 농/임/수산업과 무직/퇴직/기타 그룹은 b그룹이었으며, 이를 제외한 모든 직업은 a그룹으로 나누어졌다. 소득에 따른 고래관광의 선호형태는 고래박물관 견학 및 고래테마마을 방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분석으로 통해 각각 2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1백만원 미만, 2백만원 단위-4백만원 단위는 a그룹으로 나누어졌으며, 2백만원 단위와 3백만원 단위를 제외한 소득은 b그룹으로 나누어졌다. 이러한 그룹은 소득을 제외한 연령, 직업 그룹간의 구분이 약하게 나타났다.

〈표 6〉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고래관광선호 차이

구분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Duncan	F값	P값			
결혼 여부	고래역사탐방	기혼	375	2.47	.942	10.932	.017			
		미혼	450	2.32	.809					
	고래축제나 문화예술행사에 참여	기혼	374	2.62	.854			.164	.040	
		미혼	450	2.50	.831					
	고래박물관 견학이나 고래테마마을 방문	기혼	375	2.53	.961			17.662	.001	
		미혼	451	2.33	.792					
연령	휴양/휴식 등 단순 여가활동의 참여	15~30	342	2.27	.845	2.287	.022			
		31~40	230	2.47	.823			a, b		
		41~50	185	2.43	.756			a, b		
		51~60	75	2.37	.818			a, b		
		61~	24	2.63	.875			b		
소득	고래박물관 견학이나 고래테마마을 방문	1백만원 미만	180	2.46	.917	3.030	.010			
		1백만원 단위	169	2.55	.872			b		
		2백만원 단위	111	2.23	.820			a		
		3백만원 단위	134	2.25	.818			a		
		4백만원 단위	68	2.46	.997			a, b		
		5백만원 이상	63	2.54	.881			b		
직업	고래역사탐방	경영/관리/전문/자유직	172	2.28	.860	2.146	.030			
		사무관련직/기술직	154	2.34	.795			a, b		
		자영업	33	2.24	.830			a, b		
		서비스/판매/영업직	86	2.45	.877			a, b		
		농/임/수산업	15	2.40	.737			a, b		
		생산/단순노무직	30	2.57	.774			b		
		주부	111	2.41	.867			a, b		
		학생	171	2.55	.947			b		
	무직/퇴직/기타	56	2.13	.810	a					
	새로운 해양관광활동에 참가	경영/관리/전문/자유직	172	2.09	.756			2.394	.015	
		사무관련직/기술직	153	2.12	.734					a
		자영업	33	2.27	.876					a
		서비스/판매/영업직	85	2.25	.722					a
		농/임/수산업	15	2.73	.704					b
생산/단순노무직		31	2.35	.551	a					
주부		112	2.33	.810	a					
학생		172	2.22	.688	a					
무직/퇴직/기타	55	2.24	.793	a						
휴양/휴식 등 단순 여가활동의 참여	경영/관리/전문/자유직	172	2.31	.826	2.228	.024				
	사무관련직/기술직	152	2.34	.789			a			
	자영업	33	2.48	.755			a			
	서비스/판매/영업직	86	2.37	.736			a			
	농/임/수산업	14	2.86	.663			b			
	생산/단순노무직	31	2.45	.723			a			
	주부	112	2.46	.900			a			
	학생	172	2.26	.861			a			
무직/퇴직/기타	55	2.64	.802	a, b						

주: (1=매우 그렇다, 5=매우 그렇지 않다)

3) 고래자원의 이용선호와 고래관광의 참여의도에 대한 관계 분석

고래자원의 이용선호도와 참여의도의 상관관계분석의 결과는 < 표 7 > 과 같다. 고래관광 자원이용에 있어 일반국민이 접할 수 있는 방안이 0.266로 참여의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고래자원의 철저한 보호 및 관리방안 마련(0.245)과 과학적 연구기반 마련(0.219) 또한 약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업포경 재개는 -0.151로 음의 관계이지만 매우 약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래자원의 이용선호내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과학적 연구기반 마련과 사회문화적 활용이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0.487), 사회문화적 활용과 일반국민이 접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높은 상관관계(0.428)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래자원의 철저한 보호 및 관리방안 마련과 상업포경 재개는 음(-)의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났으며(-0.343), 상업포경 재개와 과학적 연구기반 마련은 약한 음(-)의 관계(-0.232)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7 > 참여의도와 고래자원의 이용선호 상관관계분석

	철저한 보호	상업포경 재개	과학적 연구기반	사회문화적 활용	일반국민 참여	참여의도
철저한 보호	1					
상업포경 재개	-.343(**) .000	1				
과학적 연구기반	.323(**) .000	-.232(**) .000	1			
사회문화적 활용	.227(**) .000	-.090(**) .009	.487(**) .000	1		
일반국민 참여	.215(**) .000	-.045 .189	.289(**) .000	.428(**) .000	1	
참여의도	.245(**) .000	-.151(**) .000	.219(**) .000	.162(**) .000	.266(**) .000	1

** p < 0.01

4) 고래관광의 참여의도와 고래관광의 선호형태에 대한 관계 분석

고래관광의 선호형태와 참여의도의 상관관계분석의 결과는 < 표 8 > 과 같다. 고래관광의 선호형태에 있어 고래생태 호기심이 0.382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새로운 해양관광활동 또한 0.328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인 고래관광의 형태인 선박을 이용하여 해상에서 고래를 관찰하는 형태는 0.252로 다소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래관광의 선호형태 내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고래축제 및 문화예술행사와 고래박물관 견학 및 고래테마마을 방문은 0.500으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고래생태 호기심과 새로운 해양관광활동 또한 0.410으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8 〉 고래관광의 참여 여부와 고래관광의 선호형태 상관관계분석

	참여의도	a	b	c	d	e	f	g	h	i
참여의도	1									
a	.252(**) .000	1								
b	.008 .804	.066 .054	1							
c	.280(**) .000	.171(**) .000	-.069(*) .042	1						
d	.179(**) .000	.088(**) .010	.219(**) .000	.330(**) .000	1					
e	.207(**) .000	.095(**) .005	.175(**) .000	.339(**) .000	.500(**) .000	1				
f	.354(**) .000	.306(**) .000	.030 .380	.265(**) .000	.169(**) .000	.252(**) .000	1			
g	.328(**) .000	.239(**) .000	.129(**) .000	.233(**) .000	.257(**) .000	.272(**) .000	.410(**) .000	1		
h	.132(**) .000	.195(**) .000	.260(**) .000	.023 .508	.233(**) .000	.113(**) .001	.149(**) .000	.340(**) .000	1	
i	.196(**) .000	.177(**) .000	.146(**) .000	.216(**) .000	.265(**) .000	.260(**) .000	.287(**) .000	.311(**) .000	.305(**) .000	1

** $p < 0.01$, * $p < 0.05$

a-선박을 이용한 해상 고래관찰, b-아쿠아리움, 돌고래 쇼 등 고래 관람, c-고래역사 탐방, d-고래축제 및 문화예술행사, e-고래박물관 견학 및 고래테마마을 방문, f-고래생태 호기심, g-새로운 해양관광 활동에 참여, h-휴양/휴식 등 단순 여가의 참여, I-바다에 대한 모험심

V. 결 론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관광형태로서의 고래관광 도입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고래자원의 이용에 대한 인식과 고래관광형태에 대한 선호를 알아보았다. 또한 고래자원의 인식과 고래관광의 형태에 따른 참여의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먼저 인구통계특성 변수에 따라 그룹 간 정확히 구별되지 않았으나 몇몇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5백만원 이상 소득층과 1백만원 미만 소득층의 상업포경 재개의 선호도가 매우 낮은 반면 일반 국민이 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선호는 높았다. 이는 고소득층 학력과 1백만원 이하 소득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대학생으로 다른 소득층에 비해 고래가치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 이 계층은 고래자원의 활용에 있어 보존적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고래를 접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Parsons & Warburton & Woods - Ballard & M. Lück(2003)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스코틀랜드와 하이랜드의 방문객 중 중산층이

89.4% 이상으로 평균적인 방문객보다 더 높은 소득계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반 관광자의 7%가 18살까지의 정규 교육을 받은 것에 비해 고래관광자의 62.9%가 대학교육을 통해 학위를 받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고래관광자가 고래관광산업과 고래를 접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래역사 탐방, 고래축제 및 문화예술 행사 그리고 고래박물관 탐방과 같은 형태의 고래관광형태에 대한 선호가 미혼에 비해 기혼이 높게 나타났다. 기혼 관광자를 가족단위의 관광자로 유추할 때 역사 문화 또는 교육적인 가치를 더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상업포경의 재개와 고래자원의 보호는 상반된 개념으로 분석되었으며, 고래의 보호와 과학적인 연구기반 등의 선호가 높을수록 고래관광에 참여하려는 의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상업포경의 경우 반대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것은 문헌연구를 통해 나타난 포경과 고래관광의 상반된 개념과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고래관광에 참여하는 것이 고래자원을 보호하며 과학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관계가 높아서 이러한 요소들의 강조는 고래관광의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고래자원의 보호 및 관리방안 마련, 과학적 연구기반 마련, 사회문화적 활용 등의 상호 관계가 높게 형성되어 고래생태관광으로의 고래자원 이용을 중심으로 사회문화적인 자원의 이용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고래생태에 대한 호기심과 새로운 관광활동형태로의 고래관광형태가 고래관광의 참여에 중요한 요소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형태를 잘 이룰 수 있는 방안이 고래생태관광이다. 하지만 고래생태관광의 정의에 따른 선박 등을 이용한 고래관광의 형태는 고래관광의 참여에 있어 비교적 관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직 고래생태관광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 고래관광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고 이로 인하여 고래생태관광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연구의 전반적인 결과를 통해 고래자원에 대한 보호와 관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상업포경의 재개에 대한 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고래자원의 이용이 포경의 역사와 관련한 박물관과 축제와 같은 사회·문화적인 자원의 활용이나 혼획 등에 의한 음식문화로 한정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그 활용방안으로서 고래관광 등 생태적 형태로 인식을 확장해야 한다. 고래와 고래생태를 보호하고 연구하는 방안으로서의 고래자원의 활용 또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었다.

반면, 고래관광의 형태에 있어서는 선호형태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고래생태에 대한 관심과 고래관찰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이라는 점이 고래관광 참여의도에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래관광의 형태가 고래생태의 관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고래관광으로의 발전을 이룬다면 고래관광의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고래생태관광이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래생태관광에 대한 질문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고래관광의 형태에 비해 인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문제점이 있으나 고래관광이 실시되어 성공적인 고래관광이 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고래관광의 참여의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고래자원의 이용에 대한 인식은 앞으로 고래관광의 발전을 위한 방안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곽재용, 개인가치가 관광지 선호속성과 과시, 합리적 관광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노인관광을 중심으로 -,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 곽행구 · 김농오 · 김지인, “해양자원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 전남 갯벌 및 어촌체험마을 중심으로 -”, *관광연구저널*, 22권 2호, 2008, pp.227 - 234.
- 고동우, 관광의 심리적 체험과 만족감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8.
- 김장근 외, 고래류의 생태계 기반에 관한 연구, 국립수산과학원, 2007.
- 김성진, 생태관광 진흥방안 연구, 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2.
- 이승우 외, 고래관광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정비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08.
- 남태우 · 전말숙 · 정연순 · 장로사, “자료조직 측면에서 독도표기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권 4호, 2008, pp.291 - 310.
- 박진화, 울산고래관광의 실태에 관한 연구, 영산대학교 관광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변우희 · 이정열 · 한형주, “울산지역 고래관광 상품개발에 관한 인식도 평가와 대응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3권 1호, 2009, pp.203 - 224.
- 서유구, 임원경제지, 미상.
- 연합뉴스, 방치된 장생포 ‘신명神祠’, 2008.8.
- 오민재 · 이소연, “여행목적과 관광객 만족에 의한 생태관광객 동기 세분화”, *관광연구저널*, 22권 1호, 2008, pp.277 - 290.
- 이승우 외, 고래테마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 KMI, 2008.
- 이승우 외, 고래관광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정비 방안 연구, KMI, 2008.
- 이유수, 울산지명사, 울산문화원, 1986.
- 전재균 · 윤태환, “아쿠아리움 방문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 *관광 · 레저연구*, 17권 3호, 2005, pp.265 - 282.
- 한겨레신문, 생태체험, 물범도 관광객도 백령도도 웃었다, 2008.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백서, 2005 - 2007.
- Amante - Helweg, V. L. U., *Cultural perspectives of dolphins by ecotourists participating in a 'Swim with Wild Dolphins' programme in the Bay of Islands, New Zealand*. Masters of Psychology Thesis, University of Auckland, Auckland, 1995.
- Brendan J Moyle & Mike Evans, “Economic Development Option for Island States : The Case of Whale - Watching,”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to Island Cultures*, Vol.2, No.1, 2008, pp.41 - 58.
- Duffus, D. A, *Non - consumptive use and management of cetaceans in British Columbia coastal water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Victoria, Victoria, BC, Canada, 1988.
- Eagly, Alice H. & Chaiken, Shelly, *The psychology of attitudes*,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1993.
- E.C.M. Parsons & C.A. Warburton & A. Woods - Ballard, A. Hughes, P. Johnston, H. Bates & M. Lück, “Whale - watching Tourists in West Scotland,” *Journal of*

- Ecotourism*. Vol.12, No.2, 2003, pp.93 - 113.
- Erich hoyt, Whale watching: *Worldwide tourism numbers, expenditures, and expanding socioeconomic benefits*. Yarmouth Port, MA: International Fund for Animal Welfare, 2001.
- Erich hoyt & Glen T. Hvene Gaard, "A Review of Whale - Watching and Whaling," *Coastal Management*, Vol.30, 2002, pp.381 - 399.
- Finkler, W, *The experiential impact of whale watching: Implications for management in the case of the San Juan Islands, USA*. MSc thesis, Department of Marine Science, University of Otago, Dunedin, New Zealand, 2001.
- Hamazaki, T., & D. Tanno, "Approval of whaling and whaling - related beliefs: Public opinion in whaling and nonwhaling countries," *Human Dimensions of Wildlife*, Vol.6, 2001, pp.131 - 144.
- Lück, M., *Environmentalism and the on - tour experience of participants on swim - with - dolphins tours in New Zealand*, Ph.D thesis, Department of Tourism, University of Otago, Dunedin, New Zealand, 2003.
- Mark B. Orams, "From whale hunting to whale watching in Tonga: A sustainable future?,"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Vol.9, 2002, pp.128 - 146.
- _____ "Tourists getting close to whales, is it what whale - watching is all about?," *Tourism Management*, Vol.21, 2000, pp.561 - 569.
- McCloskey, M., *Recreational whale - watching*, Paper presented at Global Conference on the Non - Consumptive Utilization of Cetacean Resources, Boston, MA, 1983.
- Muloin, S., *Whale Watching in Hervey Bay: Results from Matilda II*, Department of Tourism. James Cook University, Townsville, Australia, 1996.
- S.R. Rao & Edward G. Thomas & Rajshekhar G. Javalgi, "Activity Preferences and Trip - planning Behavior of the U.S. Outbound Pleasure Travel Market",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30, No.3, 1992, pp.3 - 12.
- UNI Yoshikazu, "Marine Mammal Watching Programs in Hokkaido and their conditions and subjects," *Bulletin of the Shiretoko Museum*, Vol.25, 2004, pp.1 - 6.

The Preference and Participation of Whale Resources and Whale Watching

Min-Gyu G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general perception of utilizing whale resources and preference for implementing whale watching tourism. This article examines perception of whale resources and identifies preferred types of the whale watching program in the feasibility of a whale watching tourism. And also analyzing the causal effect between perception of the whale resources and intention for participating in regarding the types of whale watching tourism.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are high interest in protecting and preserving of whale resources and low intention to resume the operation of commercial whale hunting. For utilizing of whale resources, we need to consider developing whale watching tour as ecotourism. The interest and watching for whale resources have a high level of relation with participating intention in whale tourism.

Participation of whale tourism will be induced by developing new types of whale tourism to meet the interests for whale resources, This approach is hoped by authors to provide useful data for implementation of whale tour program and establishing improvement plan of whale tourism.

Key words : Ecotourism, Whale resources, Whale watching